

연구 자료

호주의 축산업 현황

강 창 용*

1. 머리말
2. 축산물의 생산
3. 축산물의 관련 조직 및 유통
4. 축산물의 소비 및 수출
5. 호주 축산업의 주요 변화와 시사점

1. 머리말

호주는 세계 주요 축산물의 무역시장에서 15~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축산물 수출 대국이다. 사육두수와 생산량에서는 비록 2~4% 수준대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물의 40% 이상을 해외시장에 내다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물 수입수요 중 적지 않은 양을 호주로부터 충당하고 있다. 1996년도 총축산물의 수입규모 가운데 호주의 비중은 18%에 이른다. 쇠고기의 경우에는 25%, 양고기는 40%수준대이며, 1996년부터는 돼지고기의 수입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구증가 및 1인당 축

산물의 소비증대로 인해 전체적인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현재의 국내 축산물 생산조건을 볼 때, 국내 생산만으로 늘어나는 국내 축산물수요를 충당한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축산물의 수입은 불가피하다. 비록 WTO라는 수입증대변수의 영향이 IMF라는 수입감소의 여파로 인해 그 크기가 감소하겠지만, 환언하면 수입수요가 어느정도 억제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 우리나라는 축산물 수입국가이다.

축산물의 수입이 불가피한 우리농업의 현실이라면 국민수요에 부응한 품질의 축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분명 정책적인 사안이다. 정책적인 사안을 실천하는 데는 국내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의 주요 수입 선국가들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데에 활용해야 한다.

본문에서 호주의 축산업 현황과 최근의 변화를 보려는 것은 정책적인 사안의 실현에

* 부연구위원

표 1 호주 축산농가수, 1995.3.30

단위: 호(개)

구 분	NSW	Vic.	Qld	SA	WA	TA	NT	ACT	합 계
곡물, 양, 소	6,091	2,939	1,494	3,588	4,055	75	4	-	18,246
양, 소	5,547	3,178	1,046	1,108	630	461	-	29	11,999
양	6,281	5,017	743	1,617	1,928	624	-	24	16,234
소	11,195	8,367	11,998	1,224	1,889	1,190	208	21	36,092
낙농	2,167	7,946	1,916	850	516	779	-	1	14,175
가금	460	273	214	119	144	28	7	2	1,247
돼지	442	242	450	221	135	40	1	-	1,531
기타	1,484	1,076	1,201	352	307	148	3	5	4,686
합계	33,667	29,038	19,062	9,079	9,604	3,345	223	82	104,210

자료: ABS, 「Agriculture-Australia-」, 1997.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호주와의 축산물교류를 위해서는 여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다른 여러 요인들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나아가 관련된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정리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호주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와 관련된 조직의 내부자료 및 연차보고서에 나타난 자료를 중심으로 호주의 축산업 현황을 정리하였다. 검토한 주요 축산물은 소, 양, 돼지 등이다. 축산 농가수, 사육두수, 생산량, 유통 및 수입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호주 축산업의 최근 커다란 변화 네 가지와 우리에게 주는 호주 축산업의 의미를 새겨 보았다.

2. 축산물의 생산

2.1. 축산 농가수

호주 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수는 1995년 3월 31일 현재 104,210호로 전체

143,500호(순수 농업생산, 관련 조직 수는 제외)의 72.6%에 이른다. 주별 분포를 보면, 뉴사우스 웨일즈가 33,667호로 32.3%를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빅토리아 29,038호(27.9%), 퀸즈랜드 19,062호(18.3%)의 순이다. 호주 동부에 위치한 위 3개 주의 비중이 전체의 80% 가까이 되고 있다.

농가형태별로는 단연 소 사육농가수의 비중이 제일 크다. 전체의 1/3 이상(34.6%)을 차지하는 36,092호가 소 사육에 종사하고 있으며, 복합농의 경우를 상정하면 그 비중은 5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양 사육농가는 약 1.6천, 낙농가는 약 1.4천호이다. 그러나 소와 양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모두 합하면 82,571호(79.2%)에 이르며 여기에 낙농가를 더하면 96,746호, 92.8%로써 호주의 축산업은 한마디로 소(유우 포함)와 양의 산업으로 볼 수 있다.

2.2. 주요 축산물 생산

2.2.1. 쇠고기

① 사육형태 및 종

호주 소 사육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다른

표 2 호주의 주별 소의 사육두수

단위: 천마리

구 분	NSW	Vic.	Qld	SA	WA	TA	NT	ACT	합 계
1990	6,043	4,038	10,055	1,024	1,736	624	1,335	12	24,867
1991	6,209	4,024	10,444	1,046	1,643	642	1,361	11	25,381
1992	6,060	4,036	10,441	1,065	1,705	652	1,360	11	25,330
1993	6,111	3,923	10,269	1,154	1,713	649	1,351	12	25,182
1994	6,491	4,189	9,942	1,202	1,806	679	1,435	13	25,758
1995	6,236	4,280	9,974	1,216	1,899	793	1,421	13	25,731
1996	6,390	4,396	10,214	1,219	1,924	718	1,503	14	26,377
1997	6,435	4,368	10,373	1,213	1,987	762	1,205	na	26,354

주: na: 이용불가

자료: ABARE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호주 북쪽의 경우(퀸즈랜드, NT,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북쪽)에는, 광대한 초지에서 소를 방목하는 것이 주류이다. 여기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미국을 겨냥해서 가공용으로 많이 처리된다. 반면 남부에서는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비교적 좁은 초지에서 조방적으로 사육된다. 축산 농가당 사육 규모도 자연 작다.

초지사육에 의한 대규모 사육이 호주 축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1980년대 이래 사육장(feedlots)¹비육이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 사육장 비육이란 어느 일정한 시장을 겨냥하여 60~300일 동안 고단위 단백질 사육(곡물 비육)을 하는 것으로 호주 남북지역 모두에 산재하고 있는 데, 주로 곡물생산지역에 연해 있다. 여기에서 생산된 고급쇠고기는 지방질이 적절히 섞인(high-quality marbled beef) 것으로 많은 양이 일본으로 수출된다. 사육장의 사육능력은 851,000마리를 넘고 있으며, 퀸즈랜드에 1/2 정도, 뉴사우스 웨일즈

에 1/3 정도 있다.

호주 소는 크게 2가지 종으로 나뉜다. 하나는 영국으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온화한 날씨에 적합한 종(Bos taurus)이다. 다른 하나는 인도품종으로부터 개량된 열대기후에 강한 종(Bos indicus)다. 전자는 주로 남부 호주에서, 후자는 상대적으로 북쪽에서 많이 사육되고 있다. 이는 지역별 기후조건과 소 품종의 특성이 결합된 결과이다.

㉔ 사육두수 및 생산량

호주내 소의 사육두수는 1976년 33.4백만 마리라는 최고수치를 기록한 후 약간 감소해 오다가, '80년대 후반부터 약간 증가하였다. 1980년대 후반 24.0백만 마리에서 '90년대 초반 25.0백만 마리로, 1996년에는 26.4백만 마리로 늘어나고 있다.

주별 사육규모를 보면, 퀸즈랜드에 약 10.4백만 마리가 있어 전체의 39.4%를 차지한다.

¹ 곡물사육을 위한 사육장은 호주내에 약 760개가 있으며, 이들에 의한 생산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² 호주내에는 어미암소가 약 11.6백만마리 있으며, 퀸즈랜드에 약 5백만, 뉴사우스 웨일즈에 약 3백만, 빅토리아에 1.2백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약 1.0백만마리가 있다. 위 어미암소수치는 호주 소 사육규모 안정시 제외된 것이다.

표 3 호주 쇠고기 생산 및 세계적 위치

	사육두수(백만)			생산량(Mt, kt)			수출량(kt)		
	세계(A)	호주(B)	B/A(%)	세계(A)	호주(B)	B/A(%)	세계(A)	호주(B)	B/A(%)
1990	1,285	25	1.9	52.8	1,738	3.3	3,970	672	16.9
1995	1,310	26	2.0	53.6	1,719	3.2	4,472	785	17.6
1996	1,325	26	2.0	53.9	1,735	3.2	4,355	738	16.9

주: Mt: 백만톤, kt: 천톤

자료: ABARE

다음으로는 뉴사우스 웨일즈로 약 6.4백만마리(24.4%)이며, 빅토리아에 4.4백만마리(16.6%), 웨스턴 오스트렐리아에 약 2.0백만마리(7.5%)가 있다. 호주의 동부에 전체 소사육의 85%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세계 소의 사육규모³에서 호주의 비중은 약 2.0%를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초에 비해 약간 비중의 증가를 보이는 것은 세계사육규모의 증가추세보다 약간 빠르게 호주내 사육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계 쇠고기의 연간 생산규모⁴는 약 54백만톤에 이른다. 호주는 아르헨티나, 러시아, 멕시코 다음의 생산국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소의 사육규모와 쇠고기 생산에서의 낮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수출에서 차지하는 호주의 비중은 약 17%로서 세계 제일이다. 국내 생산의 40% 이상이 해외시장을 통해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주의 위치는 단

일국가로는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것이지만 1990년 이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뉴질랜드에 의해 그 위치가 위협받고 있다. 왜냐하면 1990년 이래 호주의 수출량은 담보상태이지만 미국의 그것은 지금까지 약 2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이다⁵.

2.2.2. 양고기

호주내 양의 사육두수는 1970년 전후 최대치('70년 180.1백만)를 기록하였다. 이후 양의 사육두수는 조금씩 감소해 왔다. 1990년대 초반 약간 증가를 보여 170.0백만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후 감소하다가 다시 1995년을 고비로 회복세에 있다. 1996년도 호주내 양사육두

³ 1996년 세계 총 소사육두수는 13.3억두로, 1970년도 10.8억 두에 비해 약 2.5천만두 정도 증가하였으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를 사육하는 나라는 브라질(151.5백만두)이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132.1백만두), 미국(103.5백만두), 아르헨티나(53.6백만두), 러시아(36.7백만두), 멕시코(28.1백만두), 호주의 순이다. 1990년대초와 비교해 볼 때 러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의 사육규모는 줄어든 반면, 중국, 미국, 호주의 사육규모는 증가하였다.

⁴ 생산면에서 최대국은 미국으로 11,750천톤, 전체의 약 22%에 이르며, 1990년 이래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으로 1996년 7,564천 톤이다. 단일국가로는 브라질이 4,960천 톤으로 세계 2위이다. 중국은 세계 3위의 생산국이지만 1990년 이래 가장 빠른 생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즉 1990년 1,256천 톤에서 1996년에는 4,700천 톤으로 4배 가까운 폭증세다.

⁵ 사실 호주의 독보적인 위치는 미국뿐 아니라 뉴질랜드, 캐나다에 의해 계속 위협받아 오고 있다. 1990~96년 사이 캐나다의 수출량은 110천 톤에서 280천 톤으로, 뉴질랜드는 359천 톤에서 520천 톤으로, 미국은 456천 톤에서 851천 톤으로 늘어났다. 세계 수출량의 증가분은 대부분 이들 3국에 의해 충당되었다.

표 4 호주의 주별 양의 사육두수

단위: 백만마리

구 분	NSW	Vic.	Qld	SA	WA	TA	NT	ACT	합 계
1990	62.9	30.6	17.0	18.6	38.7	5.6	na	0.1	170.3
1991	60.6	28.8	17.8	17.5	36.7	5.1	na	0.1	163.2
1992	53.4	26.8	15.5	16.3	34.2	4.5	na	0.1	148.2
1993	48.9	24.4	13.5	16.0	33.2	4.4	na	0.1	138.1
1994	46.5	23.4	11.5	14.7	32.0	4.3	na	0.1	132.6
1995	40.5	21.4	11.6	13.2	30.2	3.9	na	0.1	120.9
1996	41.1	22.0	10.7	13.6	29.8	3.9	na	0.1	121.1
1997	43.5	22.9	10.5	13.8	28.5	4.1	na	0.1	123.3

주: na: 이용불가

자료: ABARE

수는 약 123백만 마리 정도이다.

주별 양의 사육규모를 보면, 뉴사우스 웨일즈에 약 43.5백만 마리가 있어 전체의 35.3%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웨스턴 오스트렐리아로 약 28.5백만 마리(23.1%)이며, 빅토리아에 22.9백만마리(18.5%), 사우스 오스트렐리아에 약 13.8백만 마리(11.2%)가 있다. 소의 경우와는 달리 많은 양의 사육이 호주남부와 서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웨스턴 오스트렐리아는 뉴사우스 웨일즈 다음으로 많은 양을 사육하고 있으며, 사우스 오스트렐리아도 가장 많이 소를 사육하는 퀸즈랜드보다 많은 양을 사육하고 있다.

세계 양사육 두수는 소보다 약 2억 마리가 적은 11억마리 정도이다. 이 규모는 연도에

따라 약간의 증감을 보이고는 있으나,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유지되어온 수준이다. 호주는 지난 수십년 동안 세계 최대의 양 사육 국가였으며, 중국(1995: 세계 2위, 117.4백만 마리)이라는 변수가 있으나 당분간 그 위치는 고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다음으로는 이란(51백만), 뉴질랜드(50백만)의 순이다.

양 사육규모와는 달리 양고기의 최대 생산국은 중국(1995: 1,070천톤, 세계의 약 15%)이다. 호주는 중국 다음의 생산국이며 그 뒤를 뉴질랜드, 영국 등이 따르고 있다. 그런데 호주의 이러한 생산에서의 위치 또한 약화되고 있다. 1970년대 10% 수준에서 최근 8%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양고기의 수

표 5 호주 양고기 생산 및 세계적 위치

구 분	사육두수(백만)			생산량(Mt, kt)		
	세계(A)	호주(B)	B/A(%)	세계(A)	호주(B)	B/A(%)
1975	1046	151.7	14.5	5.3	554	10.5
1980	1093	136.0	12.4	5.6	547	9.8
1985	1119	149.7	13.4	6.2	556	9.0
1990	1198	170.3	14.2	7.0	647	9.2
1995	1072	120.9	11.3	7.3	575	7.9
1996	1057	121.1	11.5	7.4	573	7.7

자료: ABARE

표 6 호주의 주별 돼지의 사육두수

단위: 천마리

구 분	NSW	Vic.	Qld	SA	WA	TA	NT	ACT	합 계
1990	865	428	600	437	272	42	2	na	2,648
1991	822	403	596	400	271	37	2	na	2,531
1992	799	431	560	420	318	40	3	na	2,570
1993	818	425	617	435	305	44	2	na	2,646
1994	834	460	677	440	312	46	3	na	2,775
1995	791	439	644	423	316	38	3	na	2,653
1996	710	458	603	412	314	26	0	na	2,526
1997	798	508	666	381	304	24	4	na	2,684

주: na: 이용불가

자료: ABARE

출은 호주와 뉴질랜드에 의해 양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6년도 호주는 263천톤(캔과 부산물 포함)의 양고기를 수출하여, 뉴질랜드(458천톤) 다음의 규모를 기록하였다.

2.2.3. 돼지고기 및 가금류

호주의 돼지 사육두수는 소의 약 1/10수준이다. 1990년 이래 돼지 사육두수는 약 2.7백만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내 많은 돼지가 소와 같은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다. 즉 뉴사우스 웨일즈(798천마리), 퀸즈랜드(666천마리), 빅토리아(508천마리)의 비중이 비교적 높으며, 이들 3개 주의 전체에서의 비중은 1,972천마리, 73.5%에 이른다.

호주의 돼지고기 생산규모는 1996년 324천톤으로 세계적인 생산대국인 중국(40,000천톤), 미국(7,765천톤), 독일(3,085천톤), 덴마크(2,193천톤)에 비해 미미하다. 특히 중국의 돼지고기생산은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⁶.

세계 돼지고기 시장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

진 특징은 미국의 부상이다. 미국은 1990년대 초반만해도 120천톤의 세계 6번째 수출국이였다. 그러나 1996년에는 431천톤으로 수위를 쟁취하였다. 물론 그동안 돼지고기의 주요 수출국인 덴마크(396천톤), 대만(371천톤), 캐나다(355천톤), 중국(250천톤)의 증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미국의 증가세가 워낙 뚜렷하였다. 호주는 국내생산의 3~4% 정도의 양인 10천톤 내외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가금육의 생산규모도 적다. 1996년도 호주의 가금육 생산은 세계의 1% 정도인 525천톤 수준이다. 가금육 생산의 세계 최대국은 미국(14,516천톤)이지만 2위인 중국의 생산량 증가속도⁷가 매우 빨라 조만간 그 자리를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4,160천톤)과 프랑스(2,165천톤)가 그 다음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호주의 가금육 수출규모는 총생산 가운데 2% 정도인 11.7천톤이다.

한마디로 호주내의 돼지와 가금류 생산은 자국내 소비를 지향하고 있으며, 아직은 수출

⁶ 1993년도 28,544천톤에서 '96년에는 40,000천톤으로 급증하고 있다.

⁷ 1993년 5,736천톤에서 '96년에는 11,000천톤으로 급증추세이다.

표 7 호주 돼지고기 생산 및 수출

		단위: 천톤		
구	분	1990	1995	1996
돼지고기	생산량	319.0	348.0	324.0
	(세계Mt)	(69.8)	(82.9)	(87.0)
	수출량	10.3	9.3	11.5
가금육	생산량	419.7	504.0	525.0
	(세계Mt)	(40.9)	(55.0)	(57.4)
	수출량	1.9	8.7	11.7

자료: ABARE

에 있어서 전략적 품목은 아니다. 왜냐하면 돼지와 가금류의 경우 곡물사료 위주의 사육과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사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축산물의 관련 조직 및 유통

3.1. 관련 조직

축산업에 관련된 조직은 각 분야에 따라 다르게 조직되어 있다. 생산자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조직으로 CCA(Cattle Council of Australia), SCA(Sheepmeat Council Australia)가 있으며, 가공업자와 수출업자를 위한 AMC(Australian Meat Council), 고기 소매인을 위한 NMA(National Meat Association), ALFA(Australian Lot Feeders Association), ALEC(Australian Livestock Exporters Council), ACLA(Australian Council of Livestock Agents) 및 GICA(Goat Industry Council of Australia) 등이 조직되어 있다. 호주의 축산업은 여러 관련기구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이들 기구들은 정부에 의해 축산업을 위해, 축산업에 의해 징수된 기금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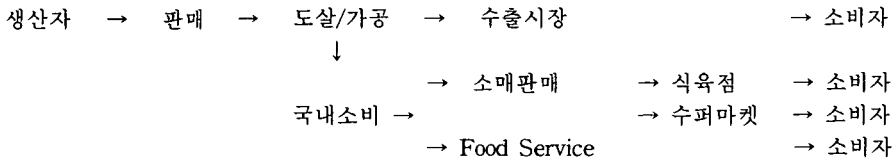
원 받는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기구로는 식육산업위원회(MIC: Meat Industry Council)⁸-1995년에 설립된, 호주 축산업의 정책과 발전전략의 강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조직-, 호주식육축산공사(AMLC: Australian Meat&livestock Corporation)-1977년에 조직된, 국내외 축산물 마케팅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조직- 및 식육연구공사(MRC: Meat Research Corporation)-1985년에 설립된 조직으로 축산업의 시장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AMLC⁹의 기능은 1995년 식육 및 가축법

⁸ 1996년 MIC는 고기산업발전전략(MISP: Meat Industry Strategic Plan)을 최종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21세기를 향한 호주 축산업의 발전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나타난 6대 전략은 ① achieving "best in class" marketing, ②describing palatability accurately, ③guaranteeing food safety, ④supplying more consistent product, ⑤achieving the optimal industry structures, ⑥improving management and leadership 이다.

⁹ 1998년 7월 1일부로 AMLC, MIC, MRC는 MLA(Meat and Livestock Australia: 호주축산공사)로 통합되었으나, 당초 세 기구의 주요 업무는 MLA에 의해 계승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조직개편 내역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통합 전의 AMLC의 기능

그림 1 축산물 유통경로



자료: Steering Committee and Task Force Report, Australian Meat and Livestock Reform for the Future,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Canberra, 1996, P23

(Meat and Livestock Act)에 규정되어 있다. 호주축산 연합회의 자금은 연방 DPIE(1차산업 및 에너지부)내 징수국(Levies Collection Unit)에서 강제로 징수한다. 연합회는 쇠고기 생산자, 기타 가축 생산자 및 가공, 수출업자의 3부류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의회에 대한 연차보고와 연찬회(Annual General Meeting)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연합회의 기본적인 임무는 첫째 쇠고기, 양고기 및 축산물 마케팅, 둘째 시장접근(Market Access), 시장정보 획득 및 전파와 관리, 그리고 협동적인 정보교류 및 도서관 서비스, 셋째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보증, 허가, 통계 및 쿼타관리, 넷째 AUS-MEAT(호주축산물 품질관리소: Authority for Uniform Specification of Meat and Livestock) 및 CALM(컴퓨터정보망: Computer Aided Livestock Marketing) 운영 등이다.

3.2. 유통경로

호주 축산물의 유통경로는 <그림 1>과 같다. 일단 사육된 가축은 판매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데, 크게 4가지의 방법이 있다. 농장판매(Paddock sales), 도축판매(Over the hooks sales), 경매(Action sales), 기타(Other)

가 그것이다.

소의 경우 약 51%가 경매에 의해, 24%는 도축판매, 14%는 농장판매에 의해 거래가 이뤄진다. 양의 경우에도 경매에 의한 방법이 54%로 가장 많으나, 소와 달리 농장판매가 37%로 두번째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도축판매에 의한 양의 거래는 전체의 7%에 불과하다.

거래가 완료된 가축은 도축장 혹은 가공공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호주내에는 215개의 도축장이 있으며, 172개의 가공공장¹⁰이 있다. 여기에서 약 29,000여명이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도축장 가운데 81개소는 수출업 허가를 갖고 있어 목표시장에 알맞은 가공처리를 할 수 있다.

도축과 가공이 완료된 고기는, 일부는 국내 소비를 위해 운반되고, 나머지는 수출을 위해 선적된다. 약 A35억\$에 이르는 축산물 수출 가운데 미국의 비중은 24% 정도, 아시아 지역은 61% 정도이다.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들을 여기에 설명하는 것은 이로 미루어 MLA의 기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¹⁰ AUS-MEAT에서 발간되는 Feedback, August 1996에 따르면 호주내 5대 양고기 가공업자는 Metro Meat International, Mcphee Group, RJ Fletcher, Sourthern Meats 및 Tatiara Meat Company이다. 쇠고기의 경우에는 Australian Meat Holding, Nippon Meat Packers, RJ Fletcher, QAC 그리고 Metro Meat International이다.

하는 고기는 두 경로로 통해 분배된다. 하나는 소매의 단계로, 다른 하나는 식품 서비스점으로 직접 이동하는 것이다.

국내 쇠고기 소비의 70% 정도는 직접 소매단계로 이동되어 소비되며, 나머지 30%는 식품 서비스점을 통해 소비된다. 소매단계를 담당하는 유통기구는 두 가지인데, 식육점과 수퍼마켓이다. 식육점은 소매단계로 넘어온 쇠고기의 67%를, 수퍼마켓이 나머지 33%를 처리한다.

3.3. 마켓팅 정보

AMLC내의 정보과(Market Intelligence Unit)는 팩스와 컴퓨터정보망(CALM: Computer Aided Livestock Marketing)을 이용하여 각종 유통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CALM은 생산자들에게는 중요한 마켓팅 도구로, 가공업자나 비육장 운영자, 신규재고 축적인(Restockers)들에게는 효과적인 재고관리의 자원으로 명성을 유지해 왔다. 특히 생산자에 있어서는 전산망을 통한 구입·판매를 통해 부수적인 많은 이득¹¹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조직이 1996년 3월 다른 두 조직(농촌관련 조직으로 Elders, Wesfarmers Dalgety)과 Joint Venture 통합하면서 상업화(commercialized)¹²되었다.

다른 한편, AMLC에서는 Information Systems Department(ISD)를 통해 각종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SD에서는 기술

¹¹ 예컨대 해당 축산물의 최종 판매시까지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고, 농가에서 직접 도살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문전구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보를 통해 생산자의 시장 대응 능력의 상승과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적인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호주내 축산업의 기술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빠른 정보의 획득과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AMLC의 전자메일 박스시스템을 통해 AQIS(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의 Dbase를 접속할 수 있으며, 1992년부터는 AQIS에서 요구하는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MEATCOM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3.4. 국내 마켓팅

과거 붉은 고기(red meat)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소비에 영향을 주어 왔다. 1980년대 붉은 고기는 콜레스테롤을 높히고, 비만을 가져온다고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AMLC¹³의 꾸준한 노력 결과, 그런 우려(myths)는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쇠고기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Love me tender”라는 주재아래 실시하고 있는 3대 캠페인—Mince makes \$en\$e campaign, Iron campaign, Taste and Pleasure campaign—은 AMLC가 소비자의 소비촉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중요한 마켓팅 전략이다. AMLC에서 이용하고 있는 홍보매체는 라디오, TV, 안내책자 등 다양하다. 또다른 마케팅으로

¹² 경과조치로 1998년 6월까지 AMLC에서 8명의 위원자리(Board seats) 가운데 의장(chair)을 포함한 4의석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¹³ 소비촉진홍보를 위해 몇몇 전문분야로 구분되어 운용되는데, 세분분야는 광고, 무역 마케팅, 영양정보(Nutrition Communication), 소비자 교육, 마케팅 발전 및 생산물-대중관계(Product Public Relations) 등이다.

AMLC, MRC, Qantas의 후원 아래 기술상을 수여(·Beef and Lamb Innovation Awards)하고 있다. 끊임없는 제품의 브랜드화 역시 마케팅의 하나이다. “Three Rivers Beef,” “Australia Angus Beef,” “Tableland Beef,” “Durong Beef,” “Clover Glen,” 등은 생산자와 가공업자가 연계하여 만들어 낸 고유의 브랜드들이다.

양고기의 경우에는 “Lamb. The Multi-culture Meal”이 홍보의 기본전략으로 자리하고 있다. 1996/97년에 시험적으로 실시한 적절한 크기의 부분 정육화된 New Trim Lamb의 홍보는 양고기가 위생적이고,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요리하기도 쉽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 주고 있다. 멜버른에서의 성공은 빅토리아와 퀸즈랜드까지의 캠페인 확대를 가져왔다.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AMLC, MRC, Qantas의 후원아래 기술상을 수여(Beef and Lamb Innovation Awards)하고 있다. 중요한 마케팅의 하나인 제품의 브랜드화 결과 “Q Lamb,” “Island Prime,” 등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호평을 받고 있다.

3.5. 수출 마케팅

호주는 세계 100여개국에 축산물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의 축산물 수출국가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고기들은 냉동 혹은 냉장상태로 수출된다. 지리적 입지로 인해 선박을 이용한 컨테이너 운반이 주요 수송방법이다. 물론 항공을 이용한 수송의 경우도 인기가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선박에 비해 수송과정에서의 품질관리 및 유지의 유리성에 기인한다.

수출시 해외 수요자의 수요에 부흥하기 위

해 엄밀한 규제가 따른다. 모든 수출업자들은 AMLC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현재 500여 허가취득 수출업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AMLC에서 제시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한 회사나 개인이다. 수출고기를 가공하기 위한 가공시설은 호주축산물 품질관리소(AUS-MEAT: Authority for Uniform Specification of Meat and Livestock)의 일정한 기준에 따른 품질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아울러 호주검역국(AQIS: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에서 제시하는 품질 및 안전기준에 의한 검역과 잔류검사를 실시한다. 호주당국은 호주 축산물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해 이와 같은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assurance systems)를 꾸준히 유지, 관리하고 있다.

AMLC는 해외시장에 관련된 정보의 획득과 무역확대를 위한 협력체제구축을 위해 해외-도쿄와 서울(동북아시아), 뉴욕(북미), 바레인(중동)-에 사무소를 개설해 놓고 있다. 아울러 해외시장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해 해당국을 설치, 활용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의 각종 접근장벽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의 협조 아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4. 축산물의 소비 및 수출

4.1. 국내소비

호주내에서 고기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것은 역시 쇠고기이다. 쇠고기의 1인당 연간소비량은 40.4kg이다. 1995년에는 35kg대까지 소비량이 감소하였으나, 앞에서 설명하였

표 8 호주 국민 1인당 연간 고기 소비량

단위: kg, Kt

구 분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1인당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전체
1990	39.8	637	22.7	387.7	18.7	313.5	24.4	417.8
1995	35.2	680	17.1	364.5	19.2	346.9	27.4	495.3
1996	39.8	642	17.1	307.6	17.9	327.0	28.1	513.3
1997	40.4	728	18.0	311.5	na	na	na	na

자료: ABARE

AMLC, 「Annual Report 1996/97」

듯이 관련 조직의 꾸준한 홍보와 마케팅으로, 소비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보여줬던 60kg을 상회하는 소비량까지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고기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약 18.0kg이다. 최근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는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명 감소추세이다. 이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의한 소비 대체에 기인한다. 특히 소득 증가에 따른 붉은 고기에서 하얀 고기(White Meat)에로의 소비 변화는 양고기 수요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돼지고기와 가금육의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눈에 띄는 소비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가금육으로, 1970년대 1인당 연간 소비량 10kg대에서 현재는 30kg 가까이 되고 있다. 호주인의 93%는 쇠고기를, 83%는 양고기를 규칙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호주내에서 생산된 쇠고기와 송아지고기의 42%(1996: 728,000톤)정도가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새끼 양고기는 76%(1996: 199,200톤), 양고기는 36%(1996: 112,300톤)정도가 국내 소비되고 있다. 호주내 7,600여개의 정육점과 슈퍼마켓을 통해 팔리는 쇠고기의 도매가액은 약 A17억\$, 양고기는 약 A5.5억\$에 이르며, 식품서비스산업(패스트 푸드

와 레스토랑 포함)에서의 쇠고기와 양고기의 도매가액은 각각 약 A5.3억\$, A0.6억\$에 이른다.

호주내에서 연간 유통되는 부산물액은 약 A7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축산 부산물은 가구, 의류 및 식용 등으로 널리 사용된다. 아울러 호주내에서 생산되는 양가죽 A25백만\$의 80%, 소가죽 A8백만\$의 80%가 수출된다. 양가죽은 프랑스에서 제일 많이 수입해 가며, 소가죽은 중국과 일본이 가장 큰 수요자이다.

4.2. 수출

1990년 이후 호주의 축산물 수출규모의 추이를 보면, '9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0년 A29.0억\$에서 '94년에는 약 A40.0억\$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97년에는 A33.0억\$이다. 전체적인 수출감소를 야기한 품목은 최대 수출품목인 쇠고기이다. 쇠고기의 수출이 지난 4년 동안 약 1/4 정도 감소한 것이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미국과 뉴질랜드의 부상에 따른 것이다. 전반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도 양고기와 산 동물의 수출약진이 눈에 띈다.

일본은 호주 쇠고기의 40% 이상을 소비하

표 9 호주의 축산물 수출현황

단위: \$million(FOB)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쇠고기	2,324	2,534	2,750	2,907	3,133	2,846	2,384	2,071
양고기	200	263	280	269	309	323	299	288
어린양고기	104	125	104	152	188	169	192	242
돼지고기	29	23	23	34	25	24	30	33
가금육	3	3	4	9	12	13	13	14
채고기	34	29	34	32	54	59	39	34
산 양	110	46	86	119	145	154	189	184
산 소	52	57	86	74	128	212	357	427
합 계	2,902	3,077	3,363	3,589	3,988	3,841	3,527	3,302

자료: ABARE

는 최대 수출시장이다. 1997년도 일본의 호주 쇠고기 수입량은 281,169톤이다. 일본내 소비 패턴의 변화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본내 "Aussie Beef"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도 지대하다. 최근의 조사에 의할 경우 일본내 90% 이상의 소비자가 다른 나라의 쇠고기에 비해 호주 쇠고기가 연하고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의 시장개방 이전에는 미국이 호주의 최대 수출국이었다. 이제 미국은 자신의 거대한 곡물비육 쇠고기 생산에도 불구하고, 가공용의 쇠고기를 수입해 가는 호

주의 두 번째 교역국이다.

한국, 캐나다 및 대만 역시 호주 쇠고기의 주요 고객들이다. 한국은 호주의 3번째 쇠고기 수입대국이며, 수입량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수입개방계획에 따라 2001년 이후에는 수입쿼타가 철폐된다. 대만의 경우에도 현재는 수입에 대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호주는 이들 확대 가능시장의 점유율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 같이 가공용 쇠고기의 수입이 주류를 이룬다.

양모산업의 성공으로 양고기 산업의 수출

표 10 호주고기의 주요 수출국, 1997

단위: 톤

구 분	쇠고기	양고기	어린 양고기	돼지고기	기 타
유럽연합	16,177	9,285	7,040	0	0
미국	211,690	9,935	12,339	0	57
캐나다	35,376	1,160	1,744	0	19
멕시코	810	8,420	3,329	0	0
일본	281,169	11,608	5,066	890	5,362
한국	55,512	2,250	1,548	124	94
대만	28,329	9,632	149	0	205
말레이시아	6,538	6,591	708	0	196
싱가폴	6,144	6,474	629	10	449
인도네시아	22,848	248	480	73	341
필리핀	21,792	11	488	227	1,357
러시아	4,714	1,812	15	690	183

자료: AMLC, 「Annual Report 1996/97」

에서의 중요성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적지 않은 양고기가 수출된다. 1996년 동안 어린 양고기 141,000톤과 양고기 55,000톤이 수출되었다. 이것은 각각 국내 생산의 68%, 24%에 해당하는 것이다. 미국은 최대 어린 양고기 수입국인데 여기에는 FARL (Fresh Australian Range Lamb)이라 부른 AMLC의 치밀한 판매전략에 의한 바가 크다. 이 전략은 호주에서는 소비자 개별의 기호에 알맞은 우량의 양고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것의 부분 냉동 혹은 냉장육이 마케팅되고 있다는 인식을 소비자에 심어주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FARL 로고는 일정한 자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지각되고 있다. 미국이외에도 영국, 파푸아 뉴기니, 일본 및 남아공화국이 호주의 양고기를 수입해 가고 있다. 일반 양고기의 최대 수출지역은 아사아이다. 1996년 39,000톤 이상이 일본,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등에 수출되었다. 물론 중동 지역, 남아공, 미국 및 영국 등에도 수출되었다.

생축의 수출도 활발하다. 이들은 대부분 번식, 도살 및 사육을 위해 팔리는 데, 매년 A5.5억\$ 이상을 보이고 있다. 1996/97년에는 생우 858,698마리가-전년대비 36.8%증가-수출되었으며,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송아지의 대부분은 남아시아로 향하며, 도살되기까지 대개 사육장에서 비육된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1996/97년에 433,526마리의 소를 수입해간 가장 큰 수입국이다. 필리핀 또한 생우의 중요한 수입국으로 같은 해 244,173마리를 가져갔다. 위 두 나라의 전체에서의 비중은 80%에 이르고 있다.

산양의 수출은 1950년대 동남아시아로 수

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수출물량의 급속한 증가는 1970년대 중동의 수요증대와 운반기술의 발전에 기인한다. 1983년에는 7.2백만마리가 선적되어 최고치를 보였다. 여전히 중동은 산양의 96%를 사가는 중요한 호주의 수출시장이다. 1996년 파키스탄에 수출을 개시한 이래, 호주는 시리아와 터키 등지로의 수출시장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호주 축산업의 주요변화와 시사점

5.1. 주요 변화

5.1.1. 관련조직의 사유화

한편 1997년 연방정부는 역사적이고도 원대한 붉은 고기산업의 법적 조직에 대한 리스트럭처링¹⁴을 발표하였다. 연방 DPIE 장관인 Anderson의 발표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자 자신의 자금을 의한 3개의 회사가 설립되어 식육산업위원회(MIC: Meat Industry Council), 호주식육축산공사(AMLC: Australian Meat & livestock Corporation) 및 식육연구공사(MRC: Meat Research Corporation)를 대신¹⁵할 것이며, 이

¹⁴ 이것은 Steering Committee and Task Force Report, *Australian Meat and Livestock Reform for the Future*,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Canberra, 1996에 기반을 두고 있다.

¹⁵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들 3조직은 호주축산공사(MLA)로 통합되었으며, 조직내부의 구체적인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직의 통폐합에 관련된 사전적인 조치나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조직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새로운 호주내

들과 정부와의 관계는 최소로 한다. 둘째, 생산자들의 기금에 의한 회사는 한 기구아래 여러 기능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세분된 하부 조직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쇠고기와 양고기를 위해 분리된 운영조직이 있을 것이며, 필요시 서로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넷째, 적절한 외부의 회계감사와 66% 이상의 찬성에 의한 위원(the board)의 해임권에 의해 신뢰성을 유지할 것이며, 다섯째 고기 가공업자와 가축 수출업자들은 자신들의 기금에 의해 별도의 회사를 만들 것이며, 생산자회사와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등이다.

축산에 관련된 조직의 최고위원회와 정부간에 합의, 서명한 합의문(Memorandum of Understanding)은 향후 새로운 조직의 기본적인 뼈대를 형성할 것이며, 조직상호간의 협동을 구축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아울러 연방법에 근거한 주요 3대 기구가 상법에 근거한 조직으로 바뀔 것이다. 이 합의문은 최종적으로 6개의 산업별 최고위원회(Peak Industry Councils)¹⁶, 새로 발족하는 3개 회사 및 정부사이에 인준됨으로써 효력이 발효될 것이다.

합의문에 따라 설립될 향후 새로운 3회사는 Meat and Livestock Australia, Australian Meat Processors Corporation, Livecorp (Australian Livestock Exporter Corporation)이다. Meat and Livestock Australia¹⁷는 AMLC와 MRC를 대체할 조직이며, 이 회사는 쇠고기, 양고기 및 염소고기 산업을 위해 마케팅, 촉진(promotion) 및 연구, 개발사업

을 담당할 것이다. 물론 가공업자와 수출업자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조직의 회원은 양, 소, 염소의 생산자 및 사육장 비육업자로서 가축거래시 부과금¹⁸을 납입한 자로 되어 있다. MLA자금은 생산자로부터는 법적 강제징수(징수내용 변경)에 의해, 가공업자 및 수출업자들로부터는 비법적인 징수계약에 의한 징수로 충당할 것이다. CCA(Cattle Council of Australia), SCA(Sheepmeat Council Australia), ALFA(Australian Lot Feeders Association)는 기금거출을 위한 단일 목적을 위해 분리된 조직으로 남을 것이며, 발언권 획득은 회원가입의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MLA는 Peak Councils¹⁹의 감독을 받는다. Annual reporting, AGM(Annual general meeting), 연간운영계획 및 전략 등을 통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것이다.

Australian Meat Processors Corporation는 가공업자들의 이익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Livecorp(Australian Livestock Exporter

¹⁶ 6개 산업별 최고위원회: CCA(Cattle Council of Australia), SCA(Sheepmeat Council Australia), NMA(National Meat Association), ALFA (Australian Lot Feeders Association), ALEC (Australian Livestock Exporters Council), Australian Meat Council Christopher Creal. 이들 관령 최고조직은 AMLC, MRC, MIC의 사유화에 직접 관련된 조직들이다.

¹⁷ 1998/99년도 예산은 약 A80백만\$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징수금의 규모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을 것이다.

¹⁸ 부과금은 소거래시 한마리당 A3.5\$, 양 80cent이며, 가공업자(AMPC)에 의해 A12.929백만\$, 수출업자(Livecorp)에 의해 A883,000\$가 거출될 예정이다.

¹⁹ 운영자금은 1998년 7월 이전에 징수된 강제징수금으로부터 지원된다. 이것은 법적인 기구로서 마케팅, 연구 및 개발활동에 치중한다.

축산관련 조직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추후 정리하고 싶은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Corporation)는 수출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회사로 자리매김이 될 것이다. 물론 가공업자나 수출업자들은 AMPC나 Livecorp를 통해 MLA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

그밖에 새로 설립되는 조직으로 Red Meat Advisory Council(RMAC)가 있는데, 각 Peak Council 회장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따라서 산업전체 업무 총괄, 각 최고위원회에서 작성한 개발계획내 분야별 사업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물론 이 조직이 합의문(MoU)과 MISP(Meat Industry Strategic Plan)의 관리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AUS-MEAT는 MLA와 AMPC의 균등출자에 의한 Joint Venture 회사로 사유화 될 것이며, AUS-MEAT용어와 표준의 유지비용은 생산자와 가공업자가 분담하게 될 것이다.

5.1.2. ID2000: National Livestock Identification System(NLIS)

이것은 호주내 사육 소 모두에 ID를 부여하여 관리하겠다는 사업이다. 사실 호주내에서의 꼬리표(tail-tag)에 의한 인식작업은 1970년대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미래의 세계시장을 위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기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에서 나타난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일본과 미국의 E. coli문제 및 화학물질의 잔류문제 등은 ID사업을 촉진하였다. 아울러 EU에서는 유럽시장으로 유입하는 가공용 소의 전체이력("whole of life" identification)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0년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위한 포괄적인 청사

진이 1997년에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첫째, 소의 출생에서 가공, 또는 도살까지의 추적강화를 통해 쇠고기시장을 지키고 강화하며, 둘째 관련된 산업의 다른 프로그램-등급기준 프로그램, 종축 개량 프로그램, 동물건강프로그램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의 수익을 증진시킨다.

이 사업은 단년에 끝을 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000년에 가서야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기계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가 정립되어가고 있다. 먼저 기계로 읽을 수 있는 특수한 바코드의 거래인식표(transaction tag)와 사육인 인식표(breeder tag)가 부착된다. 최근 CCA는 14단위의 사육인 인식표에 합의한 바 있다.

ID는 CCA회장이 직접관리하는 ID관리그룹(ID Working Group)에서 운영된다. 이 바코드화작업에의 참여는 물론 자발적인 것이다. 그러나 운용과정에 관계된 주요내용-인식표 교체 및 제거 등-에 관해서는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빅토리아 주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말부터는 NLIS의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양과 염소산업에서의 인식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SCA 회장산하 양 인식화 위원회(Sheep Identification Committee)에서는 이 작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5.1.3. 사육장의 성장

1980년대 중반 이후 호주내 하나의 소사육 형태인 곡물사육을 위한 사육장(feedlot) 설비가 늘어나고 있다. 처음 이러한 설비에 의한

사육은 일시적인 필요성에 의해 보완적인 수단으로 쓰여진 방법이었다. 따라서 뚜렷한 증가세는 오랫동안 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사육방법은 뚜렷한 목표아래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 주요 원인을 증가의 유로 들 수 있다. 첫째는 사육농가들의 사육 목표가 수출(WA 30%, NT 75%)에 있고, 두 번째 가장 큰 수요처인 일본시장의 개방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축산농가들의 상당수는 처음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한 사육을 하고 있다. 가장 큰 수요국인 일본과 한국의 수요자들이 곡물비육에 의한 쇠고기를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위한 사육장 설비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1970~85년 사이 호주내 사육장의 사육가 능규모는 18만두 정도였다. 1985년부터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사육장 설비능력은 이제 80만 두를 넘어서고 있다. 1994년의 경우 이들 사육장에서 200만 두의 소를 구입·비육하였으며, 도살의 24%, 생산의 28%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호주 남부에서는 Angus, Murray Grey 및 Shorthorn 소의 87%가 이들 사육장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육장시설의 설비증가가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호주의 주요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 쇠고기 수입시장에서 호주의 비중은 1988년 52%, '95년 50%, '96년 44%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호주의 비중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감소된 시장몹은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분할하고 있는데, 가격경쟁력면에서 호주는 취약성²⁰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5.1.4. 우량품종 육성

쇠고기의 경우 국내적으로는 하얀 고기에 의한 대체에 의해,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남미(foot and mouth disease로부터 자유) 등의 강력한 경쟁력 부상에 의해 성장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CRC(Cattle and Beef Industry Cooperative Research Centre)와 CSIRO, 뉴잉글랜드 대학 및 뉴사우스 웨일즈와 퀸즈랜드 주정부는 보다 부드러운, 품질이 좋은 소고기 생산을 위해 선발, 육종, 유전자 복제 등의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일본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잘 마블링된 쇠고기 생산을 위해 사육장 비육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우량품종선발을 위해 Angus, Murray Grey, Hereford, Shorthorn, Belmont Red, Brahman, Santa Gertrudis에 대해 집중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전자 복제에 대한 기술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것 역시 우량품종의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75,000여 genotypes 이상이 분류되었고, 육질에 영향을 주는 20개 이상의 마크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5.2. 시사점

호주의 축산업과 몇 가지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축산물 수입국인 우리로서의 시사점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축산관련조직이 그동안 유지해오던

²⁰ 1994년도 Industry Commission Report에 의할 경우 호주 쇠고기의 가격은 미국과 대동소이(434c/kg)하며, 뉴질랜드(332c/kg)에 비해 비싸다. 특히 곡물비육을 위한 호주의 보리값이 미국의 옥수수값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와의 밀착을 버리고 순수 상업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WTO 시대에 대한 대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축산관련조직도 독립성을 쟁취하여, 대외적인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활동을 위한 자금은 관련 축산인과 조직으로부터 조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호주는 국내외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머지않아 광역축산물 전산관리시스템이 완성될 것이고, 이는 호주 축산업의 수출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거꾸로 보면, 종합적인 축산물의 수입 및 국내생산관리 전산망의 구축과 활용은 그 활용 정도만큼 종합적인 축산물의 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보다 안정적인 수입선으로 미국과 함께 호주를 상정,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어느 한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우리로서는 그만큼 수입의 불안정성을 안아야 한다. 따라서 미국 일변도의 수입물량을 호주나 캐나다, 뉴질랜드로 분산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과제다.

넷째 수출창구의 단일화와 같이 우리도 수입창구의 단일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단일창구의 주체는 상업적인 베이스하 민간 조직이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되 생산자, 가공업자 및 수입업자들에 의한 자금확보를 통해 자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 ABS. 1997. 1994/95 *Agriculture-Australia-*, ABS Catalogue No. 7113.0.
- ABS. 1997. *Yearbook Australia*.
- Australian Meat and Livestock Corporation. 1995/96, 1996/97. *Annual Report*.
- AUS-MEAT. August 1996. *Feedback*.
- CSIRO. 1996. "Meat quality," *Rural Research*, 170 autumn.
- CSIRO. 1997. "Common threads in livestock breeding," *Rural Research*, 175 winter.
- Steering Committee and Task Force Report. 1996. *Australian Meat and Livestock Reform for the Future*,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Canberra.